

# 예비유아교사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 A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rogram

Dong-Kyu Moon  
Child Care Education of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 프로그램의 효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여년 간 국내에서 선행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64편을 메타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관련 요인의 전체효과 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프로그램 요인군 중 개인특성 요인군과 직무특성-보호 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둘째, 직무특성-보호 요인군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는 코칭스킬 요인, 교수태도 요인, 교과교육지식 요인, 교수효능감 요인, 의사소통능력 요인, 전문성인식 요인, 공감능력 요인, 교사효능감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특성 별 효과크기는 유아교과교육 요인, 교수학습방법 요인, 교사역량 요인, 기타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선행된 예비유아교사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개인특성과 직무특성 모든 요인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가 결과가 시사해준다.

**Abstract**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rogram, this study analyzed 64 domestic dissertations and journals brought out over the past 20 yea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of program-related factors was larg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nd job characteristic-protection factors too showed a large effect size. Second, the effect size of each sub-factor of job characteristic-protection factors was in the order of coaching skill, teaching attitude, curriculum education knowledge, teaching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professionalism awareness, empathy ability, and teacher efficacy. Third, the effect size by program characteristics was shown in the order of early childhood curriculum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eacher competence, and so on. This suggests that the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be activat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apply it to university education.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rogram, Person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Meta-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m-yook Health Univ.)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July 6,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August 2,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 1. 서론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에 달려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은 교사의 질적 수준과 관련성이 높으며 교사의 자질은 유아의 학습과 발달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 Darling-Hammond[2]는 모든 교육자원 가운데 교사의 능력은 유아의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이런 이유로 질 높은 교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고 보았다.

유아기는 신체, 정서, 인지,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인성, 습관, 의사소통 능력 등을 습득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유아교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전인적 경험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적인 풍부한 지식과 자질이 요구된다[3]. 특히 유아기는 연령 및 발달 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 개개인의 발달과 학습, 흥미와 관심 등과 같은 개별적 요구에 민감해야 하며, 유아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또한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4]. 즉, 교사는 유아의 발달적 욕구를 기초로 하여 적절한 환경구성, 교수방법 제시,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시간적 제한을 받는 현직교사 보다 교육 현장에 투입되기 전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비유아교사가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교육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예비유아교사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 가운데 교사가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 즉, 유아의 학습 및 교수법,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통해 유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1]. 또한 다양한 가족유형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과거와 다른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습득도 포함되어야 한다[5].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6], 특히 교육신념에 대한 정립은 교수 방법 습득 및 유아 교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꾸준히 지

속되고 있는데, 크게 보아 유아교과교육과 관련 된 프로그램연구, 그리고 교사역량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유아교과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과 관련된 연구로 미술, 음악, 과학, 수학, 안전, 요리, 다문화 등과 교과교육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고되고 있다[8-10]. 교사역량은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념, 도덕성, 전문성, 창의성, 대인관계 등 역량향상과 관련된 연구로 인성 및 윤리교육[11, 12], 창의성 증진[13, 14], 관계증진[15, 16], 의사소통능력향상[17, 18]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었다. 또한 교수학습방법은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법[19], 저널쓰기[20], PBL프로그램[21] 등 교수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변화된 차이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연구 가운데 선정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 및 성격과 관련된 개인특성요인과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적 내용들로 구성된 직무특성요인으로 구분되며, 또한 직무특성은 직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분류된다. 먼저 개인특성요인은 자기효능감[22], 회복탄력성[15], 자아존중감[23], 인성[24] 등이 해당되며, 직무특성-보호는 교직윤리의식[25], 교수효능감[26], 교과교육지식[27] 등이 포함된다. 직무특성-위험은 소수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28], 심리적소진[29], 학습불안도[30]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을 연구자 관심 정도에 따라 선택하여 효과를 살피고 있어 개별 연구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선택된 요인의 객관적인 효과크기를 밝혀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및 전공 특성 등 조절요인에 따른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내는데도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메타분석은 비슷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특정 연구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방법으로 선행된 연구에서 추출된 계량적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실증적 자료를 산출한다[3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 2021년 5월 30일까지 국

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중 프로그램 사전, 사후 효과성을 밝힌 요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요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요인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요인군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요인은 조절요인(프로그램 특성, 전공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는 문헌선택흐름[32]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 연구가 처음 시작된 2000년부터 현재 2021년 5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 연구 가운데 '예비유아교사-프로그램', '예비유치원교사-프로그램', '예비보육교사-프로그램'을 검색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 '국회전자도서관', '구글검색' 등을 활용하였다. 검색 결과 1,861편의 연구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연구, 프로그램 효과를 살피지 않은 연구 등 1,531편이 제외되어 330편의 연구가 선별되었다. 선별된 330편의 연구 중 분석 통계값인 평균(M)과 표준편차(SD)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 269편이 제외되었고 학술지와 학위논문에 중복 게재된 4편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 박사 8편, 석사 1편, 학술지 56편 총 65편이 분석 대상 연구로 선정하였다.

### 2.2 자료분석 및 통계분석

본 연구의 요인군 분류는 서숙기[33]의 연구를 참조하여 요인 특성 별로 유목화하여 개인특성요인군, 직무특성요인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직무특성요인군은 보호요인군과 위협요인군으로 구분하였다. 개인특성요인군은 개인의 심리 또는 성격과 관련된 요인들을 의미하며, 직무특성요인군은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적 요인들을 말한다. 조절요인은 조사대상(유치원교사, 보육교사 등)과 프로그램 특성(교사역량, 교수학습방법, 유아교과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프로그램 특성은 김미진과 김경은[1]이 제시한 분석 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최종 수집된 65편의 연구에서 효과크기 요인 131개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은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코딩 작업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 본인을 포함한 통계전문가 2인이 사전협의의 거치지 않고 각각의 연구물을 무작위 선정하여 코딩 후, 서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선택은 동질성 검사와 이질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선효과모형(Random Model)을 선택하였다.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효과크기의 해석은 Cohen[34]이 제안한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dized mean difference) 효과크기 기준을 따라 .20이하는 작은효과크기로, .20부터 .80이하는 중간효과크기 .8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오류 검증은 시각적 분석 방법인 funnel plot검사와 후속 검사 방법인 Egger's Regression검사, Trim-and-Fill 검사, Orwin의 안전성 계수 검사(Nfs)를 활용하였다[31].

## 3. 연구결과

### 3.1 출판오류 검증

효과크기에 대한 출판오류 육안검사인 Funnel Plot 검사결과(Fig1), 우편향이 의심되었다. 따라서 후속 검사인 Egger's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Table 1), Intercept가 4.138(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출간 오류가 의심되었다. 하지만 Trim-and-Fill 검사결과(Table 2),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할 연구수가 0으로 나타나 출간오류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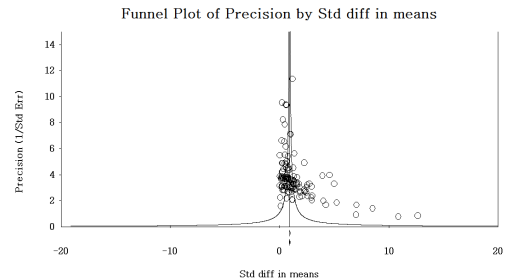


Fig. 1. Funnel Plot Test

Orwin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1,057개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체효과크기 값이 작은효과크기인 .2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 요인이 1,057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효과크기에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 3.2 프로그램 요인 효과크기

#### 3.2.1 전체효과크기

프로그램 관련 요인의 전체효과크기 값은  $Q =$  동질성 계수값이 1833.224( $p < .001$ )로 동질적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I^2$ 의 값은 92.963으로 큰 이질성을 나타내 무선평과모형(Random Model)에 따른 효과크기 값을 연구 결과 값으로 살폈다[35]. 따라서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효과크기 값은 1.281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1.121, 상한값 1.441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80보다 커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 3.2.2 요인군 별 효과크기

프로그램 요인군인 개인특성, 직무특성-보호, 직무특성-위험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무특성-위험을 제외한 두 요인군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두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군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 = 3.820$ ).

#### 3.2.3 개인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

프로그램 요인군 중 개인특성 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창의성, 회복탄력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군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효과크기

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효과크기를 나타낸 하위요인들은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두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 = 8.250$ ).

#### 3.2.4 직무특성-보호요인군 하위요인 효과크기

프로그램 요인군 중 직무특성-보호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감능력, 교사교육지식, 교사효능감, 교수태도, 교수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문성인식, 코칭스킬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효과크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효과크기를 나타낸 하위요인들은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두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보호요인군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Q^b = 33.499$ ), 코칭스킬(3.940)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교수태도(3.322), 교과교육지식(1.952), 교수효능감(1.927), 의사소통능력(1.881), 전문성인식(1.338), 공감능력(0.993), 교사효능감(0.963) 순으로 나타났다.

#### 3.2.5 직무특성 위험요인군 하위요인 효과크기

프로그램 요인군 중 직무특성-위험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학습불안도 하위요인만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효과크기를 나타낸 하위요인들은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모두 .80보다 커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위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 = 10.209$ ).

Table 1. Egger's Regression

Intercept	Standard error	Lower Limit	Upper Limit	t-value	df	P-value
4.138	0.705	2.743	5.533	5.869	128	0.000

Table 2.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1.280	1.120	1.441	1833.244
Adjusted Values	0	1.280	1.120	1.441	1833.244

Table 3. Overall Effect Size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Fixed Model	130	0.913	0.872	0.954	1833.224	129	0.000	92.963
Random Model	130	1.281	1.121	1.441				

Table 4. Effect Size by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Personal Characteristics	44	1.117	0.838	1.396	3.820	2	0.148
Job Characteristics-protection	82	1.397	1.193	1.601			
Job Characteristics-danger	4	0.739	-0.207	1.685			

Table 5. Personal Characteristics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Gratitude Propensity	1	0.411	-1.543	2.365	8.250	15	0.913
Moral Judgment	1	0.571	-1.379	2.521			
Moral Judgment	1	0.836	-1.179	2.851			
Psychological Well-being	1	0.484	-1.499	2.467			
personality	9	1.158	0.503	1.814			
Self-acceptance	1	0.050	-2.026	2.125			
Self-regulation	2	1.235	-0.200	2.671			
Self-efficacy	7	1.529	0.778	2.280			
Self-concept	1	0.223	-1.729	2.171			
Self-esteem	7	1.426	0.653	2.199			
Ego-resilience	3	1.426	0.302	2.549			
Emotional Intelligence	2	0.275	-1.118	1.667			
Subjective Well-being	1	0.257	-1.724	2.238			
Creativity	5	1.069	0.091	2.047			
Resilience	2	1.788	0.303	3.274			

Table 6. Protection Factors for Job Characteristic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Empathic Ability	7	0.993	0.198	1.789	33.499	18	0.015
Curriculum Knowledge	8	1.952	1.222	2.683			
Teacher Role Performance	1	1.414	-0.650	3.478			
Teacher efficacy	5	0.963	0.054	1.871			
Teaching attitude	2	3.322	1.830	4.813			
Teaching efficacy	19	1.927	1.448	2.406			
Educational belief	2	0.899	-0.520	2.319			
Teaching motivation	1	1.294	-0.726	3.314			
Teaching passion	1	0.758	-1.253	2.770			
Teaching ethics	2	1.137	-0.268	2.541			
Interpersonal Competence	6	0.601	-0.217	1.418			
Problem Solving Ability	4	0.344	-0.650	1.337			
Communication Ability	5	1.881	0.978	2.784			
Expertise Awareness	11	1.338	0.723	1.953			
Coaching Skill	1	3.940	1.932	5.948			
Department Satisfaction	1	0.580	-1.437	2.597			
Learning Ability	2	1.389	-0.035	2.813			
Learning Attitude	1	0.629	-1.327	2.585			
Learning Attitude	3	0.841	-0.325	2.006			

Table 7. Risk Factors for Job Characteristic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Stress	1	0.979	0.323	1.635	10.209	3	0.051
Psychological Exhaustion	1	0.095	-1.145	1.335			
Learned Wapons	1	0.284	-0.412	0.981			
Learning Anxiety	1	1.372	1.023	1.720			

Table 8. Program Characteristic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Teacher Competency	80	1.196	0.990	1.403	17.154	3	0.001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18	1.259	0.832	1.686			
Early Childhood Curriculum	19	2.043	1.617	2.468			
Other Things	13	0.752	0.245	1.259			

Table 9. Major Characteristic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Childcare & Early Childhood Education	3	0.261	-0.752	1.273	4.932	2	0.085
Childcare	15	1.530	1.049	2.010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1.227	1.106	1.447			

### 3.3 프로그램 조절요인 효과크기

#### 3.3.1 프로그램 특성 별 효과크기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크기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Q^b=17.154$ ), 유아교과교육(2.043)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다음 교수학습방법(1.259), 교사역량(1.196), 기타(0.752) 순으로 나타났다.

#### 3.3.2 전공 특성 별 효과크기

전공 특성 별 효과크기는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전공과 유아교육전공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두 요인은 Cohen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8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4.932$ ).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여년 간 국내에서 선행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중 메타분석에 적합한 64편의 논문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관련 요인의 전체효과크기와 개인특성요인군, 직무특성-보호요인군은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 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선행된 프로그램들이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개발 및 적용된 프로그램들이 관련 요인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입증해준다.

개인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는 인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창의성, 회복탄력성 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된 프로그램 연구들이 개인 심리 및 성격 특성 요인들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인성과 윤리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36],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가운데 놀이 중심 교육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인 창의성이 연구결과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37],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전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하게 된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자아탄력성과 회복탄력성도 큰효과크기를 보였는데,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교사 스스로가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무특성-보호요인군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는 코칭스킬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교수태도, 교과교육지식, 교수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문성인식, 공감능력, 교사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코칭스킬 효과요인은 한편의 연구에서 추출된 결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수의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 간의 효과크기를 살펴볼 때, 교수태도 요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된 프로그램들이 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세 즉, 교육원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수 기술 등을 갖추도록 하는데 가장 큰효과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과교육지식 요인이 그 다음으로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교사로 하여금 교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데 높은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수효능감이 교사효능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선행된 프로그램들이 교사 본인이 어떤 수업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보다, 교사의 교수행위가 유아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직무특성-보호 중 의사소통과 공감능력도 높은 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행된 프로그램이 교육의 효과성을 높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요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특성별 효과크기는 유아교과교육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다음 교수학습방법, 교사역량,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과교육 연구는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구성요소 등과 관련된 연구들로 지금까지 선행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교수학습방법 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는데, 이는 Aldemir와 Sezer[7]의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수 방법 습득 및 유아 교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것과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교수 학습방법과 비슷한 수준에서 교사역량이 높은 효과크기를 보였는데, 교수역량은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념, 도덕성, 전문성, 창의성, 대인관계 등 역량향상과 관련된 연구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38]를 뒷 받침해 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되고 적용된 프로그램들이 높은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둘째, 최근 유아교육 현장에서 중시되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대상 사전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교과과정 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성 향상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 향상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된 프로그램들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적인 요인들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예비유아교사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지속되어야 함을 본 연구가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선행된 프로그램들은 예비유아교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과 유아교수방법, 교수자로서 갖추어야 할 교수역량에 높은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있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더불어 높은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학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요인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있다.

본 연구의 제한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 통계 값을 활용해 대상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통계치를 활용하여 재분석한다면 보다 정밀한 효과크기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분석에 활용된 하위요인 가운데 한 연구에서 추출된 하위요인들 대부분은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몇몇 요인들도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함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가 누적된 후 이러한 하위요인의 효과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효과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요인에 대해서만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여 관련요인의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않은 요인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200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효과요인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M. J. Kim, K. E. Kim,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6, pp.309-331, 2020.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6.309>
- [2] L. Darling-Hammond, "Constructing 21st century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57, No.3, pp.300-314, 2006.
- [3] Y. H. Kim,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Its Effect on Their Teaching Compet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eagu, Korea, pp1-64, 2012.
- [4] NCAT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Professional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Preparation Institutions", Washington D. C.:NCATE, 2008.
- [5] S. L. Reccia, L. M. Beck, "Reflective practice as enrichment: How new early childhood teachers enact preservice values in their classrooms",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35, No.3, pp.203-225, 2014.
- [6] H. J. kim, H. Y. Noh, Y.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Pre-Early Childhood Teachers from 1999 to 2008",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56, pp.31-48, 200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58248>
- [7] J. Aldemir, O. Seze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 Service Teachers? Images of Teacher and Beliefs about Teaching", *Inonu Universitesi Egitim Fakultesi Dergisi*, Vol.10, No.3, pp.105-122, 2009.
- [8] S. M. Kang, S. N. Lee, "The Effect of an Early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Program using Multi-culture Picture Book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14, No.4, pp.335-354, 201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54203>
- [9] E. M. Koh, S. H. Park, "The Effects of Children's Cooking Teaching Program with On-line interaction On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Attitude",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9, No.3, pp.119-141, 2010.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76561>
- [10] B. G. An, P. H. Kim, "The effect of co-teaching and rubric-based feedback on science content knowledge and self-efficacy in science teaching of early childhood prospectiveteachers: A program aimed to improve science content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5, pp.31-59, 2016.  
<http://dx.doi.org/10.18023/iciee.2016.36.5.002>
- [11] H. J. Kim, H. J. Hyun, S. A. Lee, "The Effects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Based on Storytelling Using Famous Picture on the Personality and Creative Personality of Pre-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3, pp.25-54, 2017.  
DOI: <http://dx.doi.org/10.22155/JFECE.24.3.25.54>
- [12] M. S. Choi, U. Y. Choi,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Charac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Won-Buddism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for Earty Childhood Education & Care*, 2017.11 pp.185-188, 201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75483>
- [13] J. J. Youn, H. J.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ity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0, No.3, pp.239-261, 2010.  
<http://doi.org/10.18023/iciee.2010.30.3.011>
- [14] S. K. Lee, H. W. Kim, "The Effects of Design Thinking Process-based Creativity Program for Pre-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7, No.2, pp.37-55, 2017.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74546>
- [15] H. S. Park, "A study on developing and applying the resilience program based on the relationship-oriented model for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9, No.4, pp.87-114, 2019.  
<http://dx.doi.org/10.18023/kjece.2019.39.4.004>
- [16] K. O. Son, "Study on The Influence on Empathy Ability & Professional Beliefs of Would-be Teachers by Relationship Promotion Program(Filial Therapy or Kinder Therapy) Between Teacher and Chil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72-75, 2000.
- [17] H. S. Koh, J. H. Kim,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munication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 Based on TET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0, pp.399-412, October, 2017.  
<http://www.riss.kr/link?id=A104313097>
- [18] S. H. Oh, "The Effect of the Program for Verbal Interaction on Preservice Teachers' Verbal Interactions and Efficacy as a Teacher" *The Journal of Koren Teacher Educaion*, Vol.21, No.2, pp.257-279, 2004.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link?id=A105783842>
- [19] K. S. Baik,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using Portfolio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h.D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 Korea, pp21-22, 2009.
- [20] J. O. Bae,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 Verification of Journal Writing Mentoring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s for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pp91-92, 2007.
- [21] K. A. Kim, S. G.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SNS-Aided PBL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0, pp.1201-1231, 2016.  
<http://dx.doi.org/10.22251/ilcci.2016.16.10.1201>
- [22] J. E. Kim, Y. J. Cho, J. W. Yoon,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 Based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Vol.22, No.2, pp.99-110, 2019.  
<http://doi.org/10.17962/kjp.2019.22.2.006>
- [23] S. K. Shin, Y. Park, "The Effect of Stroke Program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tress and Self-Esteem about Teaching Practic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4, pp.137-156, 201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5795>
- [24] M. J. Woo, E. Y. Le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Character Education Program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haracters, Multicultural Attitudes and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7, No.4, pp.185-208, 201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5674>
- [25] K. Y. Mo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iled experts connection Teaching Ethics Education Program based on PBL(Problem Based Learning) for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Mun, Ga-Young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4, 2020.
- [26] S. H. Oh, "The Effect of the Program for Verbal Interaction on Preservice Teachers' Verbal Interactions and Efficacy as a Teacher" *The Journal of Koren Teacher Educaion*, Vol.21, No.2, pp.257-279, 2004.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link?id=A105783842>
- [27] S. K. Yoo,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mplementation and Effect of a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rough Career Portfolio",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 No.4, pp.223-252, 2011.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link?id=A103857709>
- [28] H. S. Kim,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using reality therapy on learned helplessness and learning attitude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Korea Practice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1, pp.19-35, 2016.  
<http://www.riss.kr.openlink.ssu.ac.kr:8080/link?id=A105110683>
- [29] H. S. Jo, "A Cognitive Behavior Therapy Program for Prevention of Psychological Burnout in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5, No.1, pp.85-112, 2021,  
<https://doi.org/10.22590/ecee.2021.25.1.85>
- [30] K. J. Yoo, M. K. Kim,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task based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literacy educational program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5, pp.339-372, 201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5825>
- [31] S. D. Hwang, "Understanding of Meta-analysis of Knowledge-Sunning", Seoul: Hak-jisa, pp.193-199, 2016.
- [32] D. Moher, A. Liberati, Tetzlaff., D. Alman, "Methods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Vol.62, No.10, pp.11006-1012, 2009.
- [33] S. k. Seo,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p71-73, 2019.
- [34]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ad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88.
- [35] J. Higgins, S.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eewed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2011.
- [36] K. S. Kim.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 charact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teaching competency”, Ph.D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pp1-3, 2016.
- [37] Ministry of Education·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Commentary”, 2019.
- [38] H. J. kim, H. Y. Noh, Y. Lee,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Pre-Early Childhood Teachers from 1999 to 2008”,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56, pp.31-48, 200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58248>

---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석사)
- 2007년 2월 : 국립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과(체육학박사)
- 2011년 2월 : 국립충북대학교 아동복지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 대학교 아동보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육, 사회복지, 여가문화